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뉴스 보도의 내러티브 분석*

윤선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 사회가 날로 개방되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국제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진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와 지문화 중심주의가 발전적인 국제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뉴스 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올해 상반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뉴스로 가장 빈번히 보도된 '한류'와 '하인스 워드 신드롬'으로 불린 인종 문제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4개월간 일간지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 방송 뉴스로는 KBS, MBC, SBS의 9시, 8시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언론사의 한류와 인종관련 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95개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들 언론 보도에 나타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 연구 중 활발한 성과를 낸 내러티브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이론은 한류와 인종 보도의 내면에 작용하는 하구성과 권력의 측면을 간파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레바스트로스의 구조 이론과 그레마스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한류와 인종 보도가 보이는 탈문화적 팽창주의와 정체성의 문제를 밝혀 낼 수 있었다. 이들 문제는 보다 더 심층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작용하는 욕망과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뉴스 내러티브분석,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syoon@hanyang.ac.kr

1. 들어가며

현재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과거 유휴계급의 전유물이거나, 여가 생활의 축소된 부분으로만 한정되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 영역에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문화를 알아야하며, 기술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도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시대에 와있다.

특히 나라 간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국제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의 기업들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몰두하고 새로운 경영학의 추세로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인종 간 갈등이 극심하고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치달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우리 생활에 중심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문 연구나 현실적 적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일민족의 신념과 획일 문화에 익숙한 전통으로 인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지엽적이고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 타문화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문화 간 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다급한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저널리즘에 나타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저널리즘에 나타난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하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을 것이다. 저널리즘이 객관주의와 사실 보도의 원칙 아래 국제관계와 인종문제 등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뉴스 보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자문화중심주의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특정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개인적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 사회 문제와 달리 이런 문화적 이슈는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큰 논란 없이 수용되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진 일종의 상식과 믿음을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저널리즘에 나타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에 의해 객관주의의 이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는 저널리즘의 일반적 비평인 비사실성의 보도 관행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도의 내용이 구성되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내러티브 이론을 통해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내재된 권력과 갈등의 요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널리즘에 나타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문화 관련 보도 중 비중이 높았던 한류 관련 기사와 하인스 워드 신드롬을 촉발한 인종관련 기사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 관련 기사 중 올해에 가장 보도 비중이 높았던 이슈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문제이다.

한류와 인종관련 기사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이 본 연구의 기본 틀이라면,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권력적 측면을 해석하는 이론의 지침으로는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한류와 인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문화의 이슈임과 동시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테마이다. 현재 문화 연구 중 가장 논의가 활발한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은 날로 글로벌화 하는 사회에서 권력의 광역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된다. 식민주의는 과거의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층위의 누적된 힘으로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문화 권력의 사회적 누적 층을 해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본 연구에서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의 특정한 역사성을 해석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모델의 잠재태로 도입되었다. 현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이론이 날로 가능화되면서 글로벌 기업과 시장 확대의 도구화 되는 경향성에 대해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저널리즘의 내러티브 분석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통상 저널리즘은 내러티브 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내러티브는 허구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원리로 소설이나 영화 등을 비평하고 분석하는데 주로 쓰여 왔다. 픽션의 구성 원리로 제한되어 분석과 제작에 활용되었던 내러티브 이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어학과 사회학이 접합되는 20세기 후반 인문학의 변화에서부터 기인한다. 특히 푸코 이후 소위 “포스트” 사상들이 다양하고 해체적인 인식의 틀을 조망하기 시작하면서, 언어학이 사회 문화의 토대를 해독하는 바르트의 기호학에서 사회구조와 인간 심리를 총합적 틀로 설명하는 질 들뢰즈의 자본주의 정신분석학에서 이미 사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으로서 텍스트를 구성하여 해독의 대상이 되어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허구가 벗겨지고 있다(Foucault, 1980; Barthe, 1967; Deleuze & Guattari, 1983). 이제 허구와 사실의 정연한 구조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실과 언어의 인과관계가 전복되면서 내러티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권력에 대한 고발은 문화연구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철학적 기반과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힘입어, 미디어 문화 연구에서도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소위 사실성을 구가하는 프로그램들에 내러티브 분석이 적용될 소지가 높게 된다.

이에 드라마와 영화 뿐 아니라, 전형적인 리얼리즘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나 뉴스에 내러티브 분석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뉴스의 내러티브성을 논하는 것이 일부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뉴스야 말로 객관주의의 환상에 의해 오히려 보다 정형화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러티브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은 문화 인류학자

인 레비스트로스의 학문적 성과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인간 사회는 문화적 인식에 의해 자연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 상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법에 의해 문화를 해독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Levi-Strauss, 1977: 15~18). 신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레비스트로스는 대륙을 넘어 신화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기본은 보편적 내러티브 구조로 구성된 것을 발견하였다.

레비스트로스가 다양한 이야기의 표상 너머 내재한 내러티브 구조의 원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이다(Levi-Strauss, 1968). 동화에 나오는 계모는 악녀, 마귀이고, 성경에 뱀이 사탄으로 묘사되는 등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와 영웅이 인간 인식의 기본 틀인 이항대립에 모순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이론은 미디어 텍스트에 적용되어 내러티브 구조를 밝히는데 인용되기도 하는데, 장르 영화나 광고 등 다양한 텍스트에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Will Wright(1975)는 <six guns and society>에서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구조를 장르성이 가장 강한 서부극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서부극의 전형적인 내러티브 구조는 표면으로는 다양한 활극과 스토리가 있지만 그것을 추상화시켜 심층 구조로 접근할수록 내부와 외부, 문명과 황야 같은 자연과 문화의 이항대립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Wright는 서부극의 공통분모인 구조뿐 아니라 서부극 내부의 변화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변화를 읽어내기도 했다. Judith Williamson(1978) 또한 레비스트로스를 직접 인용하면서 광고에 나타난 자연과 문화의 이항대립과 이의 초월적 아노말리로 광고에 표상되는 '요리된 자연'을 분석하고 있다(157~185). 우리나라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중 논픽션에 대한 내러티브 구조 분석으로 황인성은 MBC <PD 수첩> 중 노숙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레비스트로스의 틀을 빌어 분석하고 있다(황인성, 1998: 141~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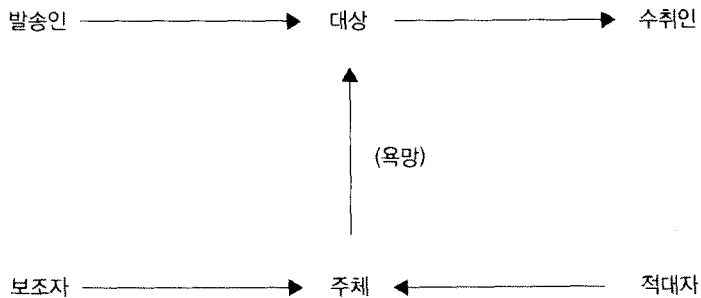
레비스트로스가 미디어 텍스트의 내러티브 구조를 파헤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원론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용적 연구 성과를 내기에는 지나치게 보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를 통찰하는

보편적 구조에 앞서 내러티브의 양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형식을 다룬 프롭을 위시한 토도로프 등 러시아 형식주의자부터 바르트, 데리다에 이르는 포스트구조주의 내러티브 이론가들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보도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양식을 보다 의미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내러티브 이론을 의미론적으로 체계화한 그레마스의 설명틀을 도입하고자 한다.

프롭은 러시아 민담을 분석하면서, 민담은 금지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련의 이야기로 정의했다. 이를 보다 의미론적으로 본 그레마스는 민담이나 소설, 미디어 담론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들은 금지된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련을 통해 사회에 내재된 욕망과 권력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레마스가 내러티브의 형식과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정리한 행위자 모델과 의미의 사각형 모델은 뉴스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레마스는 행위자 모델에서 6개 행위자의 의사소통과 주체의 욕망의 측면을 보이고 있다(Greimas, 1983; 김성도, 2002: 205~215).

<그림 1> 그레마스 행위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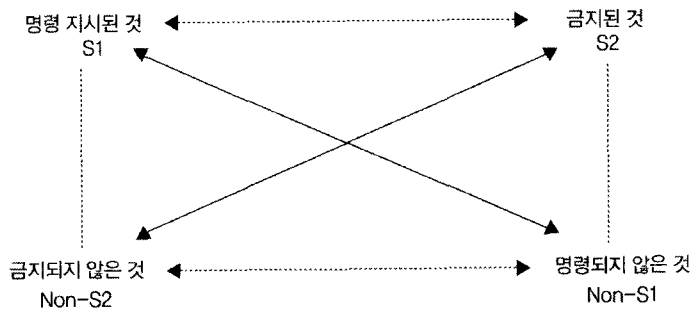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욕망의 관계이며 발송자와 수취인의 관계는 의사소통의 관계가 된다. 주체는 대상을 욕망하는데, 이는 내재적으로 명령받은 것으로 어려움(적대자)과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범주(수취인)로

변형되기 위한 것이다.

그레마스는 그의 후기작 『의미에 대하여』에서 유명한 의미의 4각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Greimas, 1987: 135~155). 이로써 개인 행위자의 욕망을 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욕망과 갈등의 다층적 의미 작용을 보다 심도 있게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그레마스 의미의 4각형



그레마스의 의미의 4각형은 내러티브에 재현되는 의미의 기본 단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텍스트 내에 내재하는 욕망과 목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 명령 지시된 것(S1)은 금지된 것(S2)과의 대립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또한 보다 포괄적이고 내재적으로 명령되지 않은 것(non S1)과 모순 관계를 상정한다. 금지된 것은 금지 되지 않은 것(non S2)과 모순 관계를 보이나 명령된 것과는 상보관계를 보인다. 이와 같이 텍스트 구성의 모순과 대립 관계를 통해 그 사회의 욕망과 권력의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레마스의 이론은 모더니즘 영화를 분석하는데 많이 이용되었다. 오댕(1982)은 장르노와르 감독의 영화 <피크닉>을 의미의 4각형으로 분석하면서 인물관계, 의미와 장소의 연관성으로 죄와 유희와 사회적 금지를 통해 당시 프랑스 사회의 문제를 파헤쳤다(180~181). 또 윌리엄스(1974)는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를 분석하여 계급관계와 욕망의 상관관계로 영화의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히치콕의 영화를 그래미스의 이론 틀로 분석한 예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의 예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미스의 이론은 뉴스를 분석하는데도 이용되고 있다. 백선기(1997, 2004)는 신문을 중심으로 그래미스 이론 틀을 이용하여 뉴스 이면의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김기국(2002) 또한 선거보도를 그래미스를 인용해 분석하고 있다(31~54).

미디어 텍스트는 흔히 재미나 정보를 위해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여겨 지지만, 보다 심층적인 차원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에 내재하는 문화 권력과 욕망이 아우러져 있다는 것을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픽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논픽션 장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 인종 문제와 한류에 관련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이슈에 내재된 권력과 갈등의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 보도의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한다. 저널리즘의 내러티브 양식을 배태하는 근거가 되는 우리 사회의 권력과 문화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포스트식민주의는 흔히 19세기 제국주의의 역사와 20세기 신식민주의의 경제 지배가 종식되면서 탈근대 사회의 문화적 지배를 의미한다는 역사 단계론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은 특정 역사적 경험과 의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역사 속에 묻힌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처벌하기 위한 보복이 아니라, 시간의 진행과 함께 화석처럼 단단해지고 축적된 우리 내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무의식적 정체성의 문제를 통해 돌아보기 위한 자기 성찰적 이론이기도 하다. 이는 역사와 문화로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형성된 소위 국민의식과 민족주의를 역사주의적이고 집단적 정신분석학으로 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으로 보면, 식민지 후예들의 무의식적 양가성(ambivalence)은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Bhabha, 1994; Spivak, 1994; Quayson, 2000). 식민주의의 공격을 혐오하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중적 심리가 식민지를 벗어난

지 오랜 후에도 역사적 기억의 상흔으로 남아 왜곡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권력과 집단 무의식은 미디어 텍스트에 왜곡된 형태로 반영되어 사회의 권력과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이 제안하는 문화적 감수성과 성찰적 문제의식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이론이 날로 기능주의화되고 경영학의 주류 이론으로 편입되면서 국제 관계에 심층적으로 내재한 권력의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 의거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주류 이론에 근거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이론의 한계는 크게 환원주의와 기능주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화는 언어와 역사 경험과 가치체계라는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한정되어,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지식과 기술에 의해 증진된다는 일반론을 전개한다(Jandt, 1998; Samovar & Porter, 2004).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이론은 문화 간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의 진작을 목적으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정교한 측정 도구들이 현재 국제적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Spitzberg, 2000; Jandt, 1998: 437~454; Samovar & Porter, 2004: 301~326).¹⁾

이같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이론이 지지하고 있는 역량은 기실 비판적 민속지학에서 말하는 “인류학적 침투”와 다름 아니다. 즉 뒤르켐 식의 기능주의적 문화 간 연구는 계몽주의에서부터 연혁한 권력 관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의 근원적 해체를 위해 일군의 학자들은 포스트모던 민속지학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Tyler, 1986: 122~140; Clifford & Marcus,

1)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이론으로 널리 쓰이는 교과서에서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눈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요약되고 있다. 한국 문화의 다층적 양상과 특히 외국인과의 문화 간 관계 맺음을 이와 같은 표층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obinson, 2000: 74~80).

1986; Marcus & Fisher, 1986).

식민주의 경험의 유무를 떠나, 현대 국제 사회에 내재한 권력의 측면을 간파하고 그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서는 문화 간 역량이 뜻하는 개인적 차원의 지식과 기술을 넘는 민족 집단에 내재한 무의식적 욕망과 이것의 발현체인 공격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진단하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 이론과 인식론을 공유하는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적 문제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와 이에 개입된 권력 차원의 문제이며, 이의 해결은 성찰적 자기 인식과 현실 변혁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다.

3. 인종 문제 보도와 내러티브 양식

본 연구에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보도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 상반기 이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보도된 한류와 인종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소위 메이저 언론사를 포함하고자 일간지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한겨레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 경제지로 구독률이 가장 높은 매일경제를 포함시켰다. 방송사 뉴스로 KBS, MBC, SBS를 포함했다. 이들 언론사의 보도 중 한류와 인종 문제 관련 뉴스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송 뉴스는 SBS 8시, KBS, MBC는 9시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뉴스 보도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의 수준은 내러티브의 구조와 형식과 의미의 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내러티브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은 구조이다. 구조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상을 규정하는 가장 내면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구조를 이항대립으로 개념화하여 내러티브 분석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구조의 형식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능하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의 내재적 주제가 의미의 차원이 된다. 여기서 보도의 내러티브 양식과 의미는 그레이마스의 이론 틀을 원용하여 분석하고자

<표 1> 한류, 인종 보도 분석 대상

구 분	한류 기사수	인종 기사수	계
조선일보	35	32	67
중앙일보	66	40	106
동아일보	46	41	87
한겨레신문	50	38	88
매일경제	29	6	35
KBS	15	16	31
MBC	18	21	39
SBS	21	21	42
계	280	215	495

한다.

을 상반기 문화 관련 보도 중 단일 이슈로 가장 보도 빈도가 높았던 것이 하인스 워드의 방문을 계기로 대두된 인종 문제이다. 인종문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이슈이면서 저널리즘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다. 하인스 워드의 방문이 식상할 정도로 과잉 보도되어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인종 보도의 획일적 내러티브 양식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하인스 워드 신드롬으로 야기된 우리 사회의 소위 ‘혼혈’²⁾의 문제는 자성적 여론 물이의 성과를 보인 면은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편향적인 보도 관행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하인스 워드 관련 기사는 저널리즘 자체 내의 상호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보도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³⁾ 이들 내러티브 양식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인

2) ‘혼혈’이라는 말 자체가 비하감을 전제로 한 문화적 인식이 부족한 용어이다. 동물 간의 교배를 전제로 한 용어로 인종 간 교류를 난잡함과 비순수성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인종 간 결혼을 피의 문제로 보는 우리사회의 혈연주의,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3) “맹 워드 뉴스 경쟁..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도배”(『동아일보』, 4월 6일, 22면).

스 워드 관련기사는 뉴스 중에서 내러티브의 허구적 구성력을 가장 강하게 엿볼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내러티브의 보편적 구조는 물론이고, 내러티브 형식과 의미라는 보다 표면적인 차원에서도 내러티브의 허구적 구성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레비스트로스 이론에 의거한 내러티브 구조를 볼 때, 뚜렷한 이항대립에 의거해 보도 내용이 구조화되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인스 워드를 계기로 제기된 우리 사회 혼혈 관련 기사를 보면 롤랑 바르트의 프랑스 문화에 내재된 제국주의적 신화 작용을 고발한 <파리 마치>에 보도된 흑인 병사 사진에 대한 분석이 연상된다 (Barthes, 1973). 프랑스 영광의 상징인 삼국기 앞에서 경건하게 경례하고 있는 흑인 병사의 사진은 프랑스적 박애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지만, 기실 프랑스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적 팽창의 역사가 현재에도 재생산되고 있다는 역동적 과정을 영상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즉 흑인 병사의 열정에 찬 눈은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을 상징하지만, 프랑스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반격을 제공하는 신화를 제공한다. “흑인 경례는 굳어지고 동결되어 프랑스가 제국주의를 확립하려고 했다는 영원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이다(198). 또 프랑스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갈등을 무마하려는 발버둥으로 보일 수도 있다. 흑인병사의 사진은 프랑스 제국주의의 상징이며, 알리바이이며, 제국주의 그 자체일 수 있다. 이는 프랑스 사회의 지속적인 제국주의적 신화 작용을 기호학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언론에 비친 인종에 관련된 기사도 이제 혼혈인도 우리 공동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보도의 내러티브는 다름을 강화하고, 비천하고 폄박받는 ‘그들’을 구원할 우월한 권력의 ‘우리’를 전제하고 있다. 피부색의 다름으로 탈선과 자살과 이주의 충동으로 점철한 ‘그들’의 묘사에 소위 ‘정상적 일상’이나 피부색 외에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에는 묘사되고 있다. 하얀 피부색으로 ‘운이 좋은’ 다니엘 헤니는 신기함의 대상으로, 재능이 뛰어난 가수 인순이는 극기 훈련에서 살아남은 찢기고 멍든 생존의 전사로 묘사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인종 문제에 대해, ‘우리’에 대한 성찰은 존재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극단적 고난과 ‘비정상성’으로 우리를 확인하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표 2> ‘혼혈’에 관한 언론 보도에 나타난 스테레오 타입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매경
“혼혈인, 피부색만 다를 뿐인데”(1월 13일 1면) “혼혈인, 그들도 한국인입니다”(1. 13/ 14. 3면) “국내 혼혈인들 하인스 워드 열풍 명암”(2. 9 11면) “혼혈의 굴레 미국 울렸다”(2. 11 14면)	“워드 보고 가슴 뛰었죠 와,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혼혈여고생 강민정 양의 희망과 현실”(2. 9. 1면) “이젠 피부 검다고 울리 않을래요 워드와의 만남에 부푼 국내 혼혈아들”(4. 4. 9면)	“한국 사회서 소외받는 혼혈인”(2. 8)	“기지촌 출신 박은주 할머니가 안정리를 지키는 이유, ‘엄마, 안정리 떠나지마, 기다림에 마르지 않는 눈물’(한겨레 3. 14 11면) “(혼혈, 이젠 웃을래요) 김동규군과 싱글머더의 희망가”(4. 6. 11면)	
KBS	MBC	SBS		
“혼혈아 장애은, 워드보고 가슴 뛰었죠.”(2. 9) “혼혈인 여전히 이방인”(2.9)	“혼혈아, 여전히 편견”(2. 8) “한국계 혼혈인 미국에서도 설움”(2. 15)	“혼혈아, 설자리 없나? 아직도 이방인”(2. 8) “소외된 혼혈인, 일용직도 힘들다”(2. 9) “혼혈인 성공신화는 남의 얘기?”(4. 3)		

<표 2>에서 헤드라인을 예시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혼혈인’의 묘사에 다양한 인간상과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는 없고, 혼혈의 차별성으로 적박하고 비천하게 살았던 불쌍한 모습 일색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흔히 장애인은 언론을 통해 언제나 전적으로 의존적이고 우울한 모습으로, 아프리카의 어린 이는 언제나 벌레가 날아다니는 비참한 환경에서 목 놓아 우는 모습으로만 묘사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⁴⁾ 우리 사회에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빈부 구조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

만, 사회적 소수자가 언제나 획일적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아니고, 나름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살아 숨 쉬는 존재이다. 또 빈부와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을 동정심에 근거한 도덕성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표에서 나타난 각 언론사들이 ‘혼혈인’을 극단적인 비참한 상황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우리와 다른 ‘그들’로서 획일적인 틀 거리를 ‘혼혈’이라는 용어를 통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항대립에 의해 현실을 묘사하는 언론의 특정한 보도 형식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 살아 숨 쉬는 다양한 인간들의 사실적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인종 보도의 내러티브 양식을 분석할 때 허구적 구성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종 문제에 대한 보도는 픽션에 가까울 정도로 전형적인 내러티브 구성을 보이는데 4월 언론계를 휩쓸었던 하인스 워드의 보도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인스 워드에 대해 수많은 기사들의 내러티브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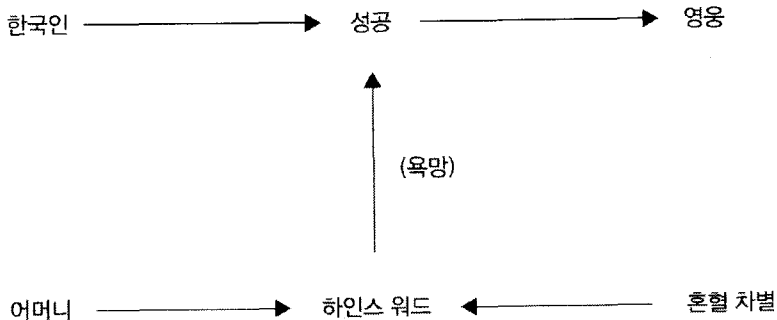
- ① 하인스 워드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기지촌 출신, 미국사회에서 냉대, 가난, 부모 이혼, 보살핌 부족)
- ② 그는 혼혈인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양쪽에서 냉대, 수치, 방황)
- ③ 어머니의 갖은 고초와 헌신으로 도왔다.(세 가지 직업, 눈물, 아들을 위한 희생)
- ④ 그는 어려움과 방황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었다.(수퍼볼 MVP)

4) SBS 4월 5일 8시 뉴스에서 “혼혈아동들 워드 아저씨 보고 싶어요”(SBS 4. 5)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8살 아람이도 오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아람이에게 하인스 워드는 아빠 같은 존재입니다(안진희. 아람이 엄마: 처음에 TV나 인터넷에서 하인스 워드를 보더니 자기 아빠냐고.. 그래서 삼촌이라고 했어요). 주변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지내야 했던 혼혈인 아이들...”라고 보도하고 있다. 9살의 어린이가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아버지라고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어린이가 자기 정체성을 피부로 단일화하고, 아버지라고 본다면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인종의 흑인들을 모두 가족으로 착각하는지 의문이다.

⑤ 그는 한국인이다. (한국여행, 뿌리찾기, 한국 자랑)

하인스 워드 보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러티브 구성 양식을 그레마스의 이론을 빌어 보면 보도가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내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언론사들이 각기 하인스 워드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내러티브 양식은 앞서 설명한 <그림 1>의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그림 3>과 같이 함축될 수 있다.

<그림 3> 하인스 워드 보도의 행위자 모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행위자 모델에 대입하여 보면, 하인스 워드(주체)는 성공(대상)을 욕망하지만, 혼혈에 대한 차별(적대자)로 시련을 겪게 되고, 어머니(조력자)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면서 영웅이 된다. 이는 곧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시련과 방황을 끝내고, 한국인으로 돌아가면서 해피 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와 같은 하인스 워드 보도의 내러티브 구성에서 중심에는 조력자로서의 어머니가 위치하며,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하인스 워드의 새로운 범주화인 영웅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한국인의 근거이기 때문이다.⁵⁾ 그레마스는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시련을 자격시련, 주요시련, 영광시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인스 워드 기사에 주

로 나타나는 시련은 자격 시련이다(Greimas, 1983: 329). 자격 시련은 주체의 욕망 부응 자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뉴스보도에서는 모든 시련의 원인을 혼혈이라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 시련에 두고 있다. 하인스 워드가 성장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묘사되고, 이는 모두 혼혈의 문제라는 자격 시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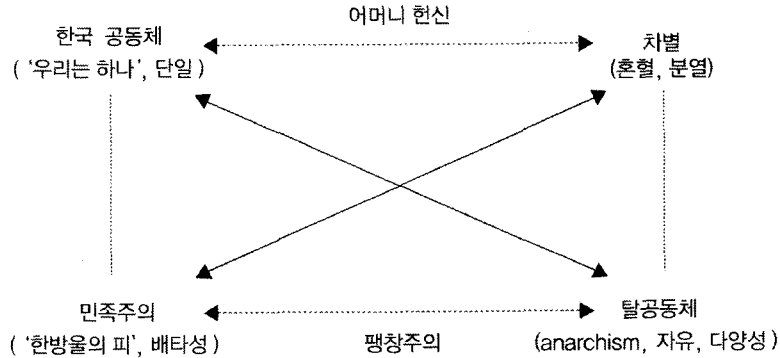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혼혈’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인구의 대다수가 혼혈로 구성된 미국이나 남미 사회에서 인종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해도 ‘순혈’과 ‘혼혈’의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워드와 그의 어머니는 타 인종으로서 미국사회에서 차별받는 인종적 문제와 또 가난과 신분에 연관된 계급의 문제가 큰 장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보도에는 시련의 원인을 일률적으로 ‘혼혈’로 틀 지워 사실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한국 공동체는 ‘혼혈’의 문제가 존재해, 워드가 미국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감의 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그의 모든 어려움, 특히 미국 사회 내에서의 문제를 ‘혼혈’로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하인스 워드 보도에 나타난 내러티브 구성 양식을 그레마스의 의미의 4각형에 대입해 보면, 개인 차원을 넘어서 보도가 심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욕망과 권력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인스 워드 보도가 주창하는 순혈과 혼혈을 넘어 한국 공동체를 재건하자는 메시지는

5) “어머니 눈물이 영웅을 키웠다”(『조선』 2. 7 1면); “워드 어머니의 한”(『조선』 4. 6. 9면); “어머니야말로 나의 진짜 MVP 워드, 30년 전 태어난 병원 찾아.. 의사 초조해하던 워드 아버지 생각나”(『조선』 4. 7. 28면); “한-미 워드 엄마 찬양 속사정은?”(『한겨레』 2. 15. 26면); “워드 엄마를 찾아 나를 찾아 한국 여행”(『중앙』 4. 3); “워드, 한국의 잠든 효심을 깨우다”(『중앙』 4. 10); “어머니의 나라 온 하인스 워드, 모국에 희망의 슈퍼볼을”(『한겨레』 4. 4. 12면); “미 풋볼스타 워드 씨 한국인 어머니 사랑”(『매경』 2. 2); “하인스 워드 ‘한국인 오기로.’”(MBC 2. 9); “무너진 편견의 벽”(MBC 4. 12)에서 공통적으로 미국에서 갓은 고초와 희생으로 접시 닭기, 호텔 청소, 잡화점 계산대에서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한 어머니의 행보를 그리고 오늘의 영광은 어머니의 덕이라는 고백을 보인다.

대립항과 모순항으로 구성되는 의미의 4각형에서 되짚어 볼 때, 팽창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제적 권력을 배태하고 있다.

<그림 4> 하인스 워드 보도의 의미의 시각형



하인스 워드의 보도도 의미의 기본 요소는 한국적 공동체의 부상, 곧 민족주의 정신의 발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러티브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S1과 S2의 대립, 즉 “혼혈인도 한국인이다”는 주장으로 한국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한 혼혈의 문제를 부상시킴으로서 한국적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보도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구도를 따르면, 이 둘의 대립관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헌신이다. 또한 의미 4각형의 하위에는 한국적 공동체와 모순관계를 가지는 반공동체적 자유와 다양성이며, 이는 민족주의에 대립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차별과는 상보 관계를 보인다. 즉 하인스 워드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사회적 욕망은 민족주의적 목적성이며, 이는 세계 단위의 팽창주의적 욕망의 발로이기도 하다.

여기서 내재된 우리 사회의 내재적 권력관계는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면 어머니의 일방적 희생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포스트식민주의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팽창주의적 동기를 들 수 있다. 포스트식민주의에서 시각

에서 보면 한국의 인종문제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라기보다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반동적 팽창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혼혈의 문제가 부상한 것은 미국에서 미식축구 스타로 떠오른 하인스 워드의 인기와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타자의 시선을 통해 인정받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에 대한 칭송이다. 우리 사회에 ‘혼혈’의 문제를 재인식하자는 캠페인성 기사들도 동정심에 근거한 도덕성이거나 혹은 자본주의적 경쟁력을 위해 ‘한 방울의 피’라도 한국인이면, 한국 공동체로 포섭하여 세계로 팽창하자는 목적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식민지에 대한 왜곡된 기억이 식민지 지배자를 증오하면서, 한편 그 권력을 동경하는 이중적 심리로 인해 저항의 대상이었던 권력을 다시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언론 보도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민족주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어머니의 헌신’으로 묘사되며, 이는 곧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권력의 억압을 나타낸다. 하인스 워드 언론 보도의 내러티브를 보면 어머니의 헌신이 불가능과 현실 모순을 해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인과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가부장적 권력의 발현이기도 하다. 하인스 워드 기사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헐벗고 굶주리며, 초인적인 노동력으로 아들을 돌보아 영웅을 만드는 역할로 묘사된다. 여기서 어머니의 행복과 안위는 추구될 수 있는 가치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실 모순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초인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한다. 전통적 제국주의가 가부장제에 근거한 공격성과 정복주의의 발현이라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포스트식민주의에 근거한 한국적 민족주의도 가부장제를 근거로 표상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면, 하인스 워드 보도에서 수호되고 있는 한국적 공동체의 근간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여성은 밥냇없이 못 먹고, 못 입고, 세 가지 일자리를 뛰다니며 과중한 노동으로 희생해야만, 정당한 한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외부적 권력의 비판에 앞서 포스트식민주

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부 주체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해야 한다. 과연 한국인의 정체성은 관련 보도에서 무엇으로 묘사되는가?

<표 3> 하인스워드 보도에 나타난 한국적 정체성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매경
<p>“아들과 잠봉 먹고 싶다” 수퍼볼 영웅 워드 어머니와 방한 (4월4일 2면)</p> <p>“단일민족 강조 ->다인종 현실 수용” (4. 8 4면)</p> <p>“수퍼볼 MVP 하인스 워드 어머니 김영희씨 인터뷰” (2. 8 2면)</p>	<p>“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첫인사 절반의 한국인 축복이라 생각” (2, 11 10면)</p> <p>“29년만의 귀향.. 갈비 맛있어요, 하인스 워드 입국 첫날 한식으로 저녁” (4. 4 9면)</p> <p>강조 “한국인이라는게 자랑스럽다” (4. 5. 29면)</p> <p>“떡매 치는 워드 ‘난 힘센 농부’ 민속촌서 전통문화체험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 (4. 10 26면)</p> <p>“호텔방서 쉴 땀 어머니와 화투했어요” (4. 13. 11면)</p>	<p>“하인스 워드 한국영화보며 한국 문화 수업” (3. 9.)</p> <p>“가장 큰 고통이었던 혼혈 이제는 행운이라고 생각” (4. 5)</p> <p>“워드 30년만에 출생장소 방문” (4. 6)</p>		
KBS	MBC	SBS		
<p>“노대통령 혼혈인 성공환경 만 들겠다.” (4. 4)</p>	<p>“워드 어머니 나라 갑니다” (3, 4)</p> <p>“워드 어머니 상봉 ‘축하해 아들’” (2. 12)</p>	<p>“하인스 워드 ‘나의 절반은 한국인’” (4. 4)</p> <p>“외신 ‘깜짝 스타, 반짝 관심’ 혼혈인 차별 지적” (4. 4)</p> <p>“워드, 출생병원 방문 등 ‘뿌리 찾기’ 나서” (4. 6)</p> <p>“워드, 전통문화 체험” (4. 9)</p>		

하인스 워드 관련 보도 중 특히 4월에 집중된 방문 관련 기사는 워드의 일거수일투족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찾고 있다. 이는 비단 워드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표 3>에 예시된 헤드라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보도 내용에서 묘사되는 한국적 정체성은 워드가 취하는 한국 음식, 풍습, 출생지, 짧은 한국말 인사 등이다. 보도 내용에 묘사되는 대로 하인스 워드가 갈비를 10인분 먹고, 한복을 입고 떡메를 치고, 출생 병원에 30년 만에 찾아가 아직도 워드 출생 당시 산모 상태와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는 초인적 기억력의 소유자인 담당 의사를 만나는 일을 보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⁶⁾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한국적 정체성으로 명명하는 내러티브의 틀을 벗으면, 이들은 사소한 일상의 취향의 문제일 수 있다. 김치나 갈비를 좋아하는 외국인도 많으며, 떡과 한복을 선호하지 않는 한국인도 얼마든지 있다.⁷⁾

인종문제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사회 갈등의 주요 부분이고, 미래의 사회 발전을 위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갇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제 관계에서도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소위 ‘혼혈’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법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

6) 『동아일보』 2월 8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자의 한국적 공동체의 감성을 글로 보이고 있다. “갈비는 그렇다 치고.. 콩나물 무침과 어묵볶음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뉴욕에 온 지 반년 조금 넘은 기자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다. 세상 어디에 있던 아들이 얼마나 잘났든 코리안 맘(Korean Mom)의 마음은 똑같았다. ‘아이가 오면 우리 한국음식을 해줄 거예요 갈비, 콩나물, 튀김, 어묵 같은 거.. 애가 좋아하니까.’... 아들은 엄마한테 눈물도 물려받았다... 검소함도 물려받았다.”(『동아일보』 2. 8).

“워드는 한국식당에서 콩나물과 오징볶음이 없으면 한국 식당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했다”(『조선』 2. 9. 9면)

7) 폴프 선수 미셸 위가 한국을 방문해 미숙한 한국말로 족발과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인사에 우리는 하나라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사실 이는 외국인 매니저가 각본을 써 준 한국 마케팅용 카피라고 한다(『조선일보』 7. 9).

게 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에 내재된 억압적 권력과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미래 발전의 방향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한층 심화시키는 핵폭탄의 시한장치로 보인다.

인종 문제에 관련된 주요 언론 보도에서 결여한 것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인식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감수성으로 한국과 외국의 관계, 인종과 문화 교류의 문제에 접근했다면, 현재 언론보도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작위성과 권력적 억압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것이다. 인종에 관련된 문화적 권력과 보도 관행의 탈문화적 내러티브 양식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문제가 해결점을 찾기는 어렵다. 포스트식민주의와 관련된 문화적 이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고민하는 문제이다. 국가 간 민족 간 인종간의 갈등의 문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이해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한류 보도의 내러티브 분석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확대되는 한류 담론은 흔히 한국 발전의 상징으로, 경제적 성취로 인식되지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이슈이기도 하다. 특히 뉴스보도의 내러티브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문제의 해결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을 수 있다.

한류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며 불과 3~4년 만에 확대된 것이다. 한류는 방송 프로그램이 외국에 수출되면서 비롯되었는데, 우리나라 방송의 특성상 수출은 극히 저조하다가 IMF를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송물의 수출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방송물이 지상파 3사에서 자체 in-house 제작으로 주로 충당하다보니, 다양한 윈도우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내수용으로 특정 방송사 주관으로 제작되었다. 'IMF 위기'가 닥치면서 광고가 반감되는 위기를 방송사가 겪으면서, 사업 다각화와 다양한 유통활로를 열기 위해 방송 수출이 시작되었

으며, 이것이 우연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류의 원조로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위시한 방송물들이 아시아권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국제시장에 전략이나 접근법을 가지고 시도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한류 현상을 자축하는 것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지 않아도 성공한 결과를 뒤늦게 발견한

<표 4> 한류 보도에 나타난 확대 담론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매경
“LPGA 한류 하 와이 첫승 인헤 전술” (동아 2월 16일 26면) “아 시아 유교 제례 에도 한류 바람” (동아 2006. 3. 6 19면) “한류, 중 국 화풍에도 분 다” (동아 2006. 3. 7. 22면) “음 식세계 음식 한 류” (2006. 3. 31) “광고 한류. 국내 작품 일중대만 등 세계 각국 수 출” (4. 3. 40면)	“소설 한류 예펠 답 등지 틀다” (조선 2006. 2. 1. 2면) “축가 되살 린 홍콩 한류” (조선 2006. 2. 3. 25면) “이승엽 김치 요미우리, 한류상품 출시예 정”	“ 한류열풍 LA는 지금 ‘대한민국’ 야구 열풍” (중앙 2006. 3. 16) “18 명 새별 클래식 한류 이끈다” (중 앙 2006. 4. 2) “유럽에 한류 바 독을 프랑스 대 회 성황리 끝나” (중앙 2006년 4. 6) “파병군이 펼 치는 한류” (2006. 1. 2) “한 국시 일본서 열 풍 문화 한류까 지 뜬다” (2006. 1. 24)	“세계 최대 가전 쇼 디지털 한류 깃발 필력” (1. 5) “신혼여행도 한 류 바람 만든다” (1. 7. 11면) “중국 먹거리 시 장 문화 마케팅 통하네” (3. 6 14 면) “홍콩발 미술관 한류 싹튼다” (3. 8. 19면) “인권에서도 한 류 필요하다”는 테” (3. 25 5면) “이번엔 새마을 한류, 강원도 우 수농촌 체험 등 관광상품 추진” (4. 8 11면)	“골프장서도 한 류붐 만들 것” (매경 2006. 1. 3) “디지털 한류 미 국서 뿜낸다” (매 경 2006. 1. 5)
KBS	MBC	SBS		
“스포츠 한류 교 민사회 달군다” (KBS 2006. 3. 8)	“미국 달군 한류” (MBC 2006. 3. 18) “입맛도 한류” (3. 14)	“김치 세계 3대 건강식품 선정” (sbs 2006. 3. 25) “인도 한류 연다 TV 코리아 쇼케이스 개황” (sbs 2006. 2. 8)		

타이고, 이제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류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대되면서 언론에서 다양한 현상을 보도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러티브 구조가 존재할까? 첫째, 한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한류가 일정 대상에 고정되지 않고 과잉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는 방송이나 영상물의 해외 수용자의 반응뿐 아니라, 모든 문화물의 해외 진출을 한류라는 이름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표 4>는 언론사의 한류 관련 보도 중 확대 담론을 예시한 것이다.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한류의 원뜻을 무엇으로 가정하는지 의아할 정도로 확대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류 현상은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에 대한 해외 수용자들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위에 예시한 제목의 보도 내용을 보면 본래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문학, 예술, 스포츠, 심지어 음식, 생활양식, 전통 등 다양한 현상을 한류로 표현하고 있다. 스포츠 선수의 선전이나, 김치의 수출 등 한국인이나 한국의 것이 외국에 수출되는 것을 경축하고 있다. 또 유교 제례나 바둑 같은 국적은 불분명하나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것이 외국에서 활용되는 것에도 한류라는 이름으로 경이로운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한류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적인 것과 외국과의 관계를 맺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을 한류라는 이름으로 확대 담론화하고 있다.

한류 보도가 다양한 현상을 포섭하여 확대 담론화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근원적 차원에서는 보편적 내러티브 구조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의 연장이며, 한류가 다양한 현상을 뜻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는 보편적 구조는 타자에 의해 인식되는 자신의 상상적 실체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가상적으로 표상화 되는 것이다(Gandhi, 1998: 129~151).

한류와 관련한 메이저 언론사들의 뉴스 보도는 다양한 정보와 재미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허구적 내러티브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한류의 실체는 없고 국제관계에서 유추된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대자로서의 한류가 존재한다. 즉 한류란 내러티브적 구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전형

<표 5> 한류 보도의 일방주의적 내러티브 구조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매경
이영애에 홍콩이 반했다 (1월2일 22면) “한류타고 한국어 교원자격증따기 바람” (1. 7. 11면) “외국인 하루 100명 남이심 찾는다” (1. 11, 15면) “미에서..일에서.. 한류차원이 달라졌다” (2. 4. 2면) “탄자니아에 겨울연가 뜨고 이집트에서는 대장금 돌풍” (3. 14. 13면)	“최지우, 일본을 또 홀리다” (1. 20 26면) “대장금을 뮤지컬로.. 한류 열풍을 태풍으로” (2. 4 21면) “미리 가본 한류우드, 한류에 불지펴라” (3. 10. 14면)	“홍콩 연말연시 달군 한류” (1. 1) “한류, 서양문화 동양식으로 걸러 아시아 열광시켰다” (1. 3) “대장금 인기 탄비빔밥 중국서도 비벼비벼” (1.24) “헐리우드에도 한류바람 거셀 것” (1. 26) “뉴욕 맨해튼은 비에 젖는다” (1. 31)	“조승우 지킬엔 하이드 첫 도쿄 공연 기립박수, 우사마 뮤지컬 한류 불붙이나” (3. 15 19면) “중 한복 덩하오 결혼 촬영용 인기” (3. 20 10면) “춤바람 한류 몰려 유럽나간다” (4. 5 19면)	“관광객 600만 돌파.. 한류더봤네” (1. 1) “한류의 위력” (1. 3) “한류 세계화 지원 정부, 지역별 특화” (1. 18) “대장금이 13억 마음 사로잡듯 중국 바람도 한국에 불었으면” (1. 28)
KBS	MBC	SBS		
“드라마 해신 다 음달 인도 안방에” (2. 13) “한국 TV 프로그램 12억 인도 공략하라” “비 뉴욕을 적시다” (2. 3) “김중취재 한류 미시장 도전” (2.3) “한류 관광지 중국 관광객 복적” (1. 30)	“한류는 계속된다”(1. 1) “비 뉴욕 적시다”(2. 3) “인도네시아 짜랑해요 한국” (4. 2) “중국에 한류 심은 이영애 소학교”	“2005년 한류 수출 1억달러 돌파” (2. 12) “미 음반사 6~7곳 경쟁적으로 비 접촉” (2. 4) “가수 비 뉴욕을 적셨다” (2. 3) “비 아시아를 넘는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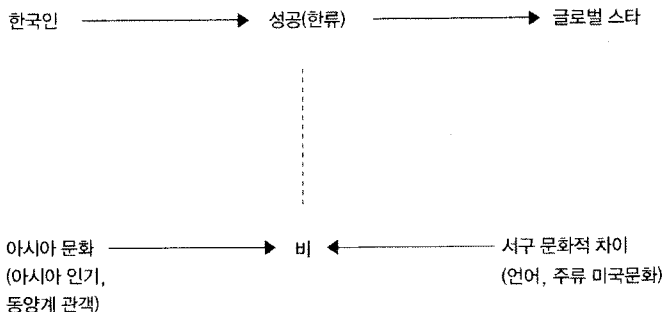
적인 문화적 인식 틀이지 자연적 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율배반성이다.

한류 관련 보도의 두 번째 내러티브 특징으로 일방성을 들 수 있다. 한류가 과잉 담론화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포섭하고 확대하지만, 보도 방식에는 뚜렷한 일방향성을 보인다. 보도에 나타난 한류는 다양한 현상을 명시하지만 여기서 뚜렷한 일방성은 국제 차원에서의 권력이다. ‘한국’의 무엇인가가 ‘외국’에서 인정받고 확산된다는 팽창주의적 포만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표 5>에서 예시한 헤드라인에서 우리의 영상물과 상품이 해외로 나가, 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 일방적인 관심으로 한류에 대한 보도가 접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정복, 공략, 바람, 돌풍, 태풍 등으로 획일성과 일방적 권력의 언어로 한류 현상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관계에 마치 제국주의적 권력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수용자의 주목을 받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뉴스의 관행으로만 보기에 지나치게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한류에 관한 보도이다.

위의 보도 중 가수 비의 미국 진출에 대한 보도를 샘플로 하여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에 대입하여 한류 보도의 내러티브 구성 양식을 예시하고자 한다. 가수 비의 보도는 한류 보도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이면서, 특정 일자의 사건으로 특히 방송 뉴스의 커버리지가 높았다는 면에서 비교적 차원에서 좋은

<그림 5> 가수 비의 뉴욕 공연 보도 내러티브의 행위자 모델



샘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수 비에 대한 보도 내용 중 공히 강조된 것은 비가 뉴욕 맨해튼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사 작성의 6차 원칙의 장소의 중요성을 넘어 주된 의미로 보도되고 있다. SBS는 3일 연속 기획으로 “가수 비 뉴욕입성” 제하로 보도하고 있다. KBS, MBC도 헤드라인을 장소로 정하고, 기사의 리드를 모두 맨해튼 공연으로 이끌고 있다. 비의 공연 장면의 영상과 더불어 3사의 뉴스 보도는 뉴욕 진출을 자축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⁸⁾

을 한해 최고의 한류의 성과로 기록된 가수 비의 공연은 앞서 설명한 일방적 내러티브를 드러내는데, “입성”, “도전장”, “휘어잡고” “사로잡고” 등 영토적 침투나 공격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연 자체의 평가, 음악에 대한 해설이나 대중문화의 교류의 측면은 보도 내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가수 비는 음악적, 대중문화적 중요성에 앞서, 한류의 세계 진출을 옥망하는 주체로 보도에는 묘사된다. 이는 한국인을 발신자로 하고, 이의 성과는 글로벌 스타를 수취인으로 하여 성취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의 적대지는 서구의 주류 문화로서 보도 내용에는 간단한 언급만 있었지만, 언어적 장애와 미국 팝음악의 경향이라 볼 수 있다.⁹⁾ 조력자는 아시아 문화로 비의 아시아에서의 성공이 뒷받침해주고, 뉴욕 공연의 다수

8) MBC (2.3) “(A) 뉴욕메디슨 스퀘어가든은 한국의 젊은 가수, 비에 열광했습니다.. (R) 뉴욕메디슨 스퀘어가든도 한류스타 비에게는 더 이상 꿈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SBS (2.2) “(A) 아시아를 평정한 한류 열풍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 미국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R) 아시아 한류 스타의 뉴욕입성은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두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2.3) “(A) 동양무술을 보는 듯한 힙합댄스 같은 차별화된 독창성, 세계 대중문화의 최전선에 비가 들고 나간 무기입니다.” KBS (2.3) “(A) 한류스타 비는 이제 미국을 휘어잡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R) 객석을 가득 채운 동양계 팬들은 미국도 아시아판 한류의 영향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용문에서 (A) 앵커 (R) 리포터를 뜻한다.

9) 실제 보도 내용에 이에 대한 분석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 SBS (2.3) “뉴욕타임스는 미국 팝스타들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나 성적 매력, 빠른 팝 구사 능력이 비에게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는 보도가 전부이다.

관객도 동양계 미국인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수 비의 공연 보도의 내러티브가 서구 문화 진입의 장애와 아시아 문화권의 조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 보도 내용에서 문화 교류의 측면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특히 아시아 관객도 비의 성공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객체로서만 묘사되고, 그들의 평가나 요구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도의 내러티브에서 한국의 문화의 세계 진출이라는 한류의 목적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한류 보도가 일방주의적 내러티브를 상징한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이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한류 보도가 지닌 내러티브 구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도 한다. 현재 한류 현상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이고, 산업에만 관심이 한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드높다(이기형, 2005: 189~213). 그러나 또 한편 이울배반적이게도 보도의 일방적 편향성으로 인해 현실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여 결국 충분히 산업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위에 예시한 가수 비의 뉴욕 공연에 대한 보도도 “뉴욕 입성”이라는 감격에 매몰되어, 실제 그의 공연이 갖는 음악적, 문화 교류적, 산업적 가치 생산의 측면은 보도 내용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공연이 소위 ‘한류’의 시장 확대에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문화적, 산업적 차원의 객관적 평가나 예측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데 실제 보도 내용에서 그 문제에 대한 초점은 찾아보기 어렵다.¹⁰⁾

셋째로 한류 보도의 경향으로 한류에 팽창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대다수 보도에 비해, 한류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려는 뉴스도 그 수는 적지만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10) 이는 신문 매체에도 마찬가지다. 비의 공연을 중요하게 다룬 『중앙일보』(1. 31)의 경우도 “아시아 한류 돌풍의 주역인 비가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무대에 서다”로 시작되는 기사는 대부분 뉴욕 타임스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미국 유수 신문에 비의 기사가 실린 자체도 한류의 일종이라는 듯 그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이다.

<표 6> 한류에 관한 자성적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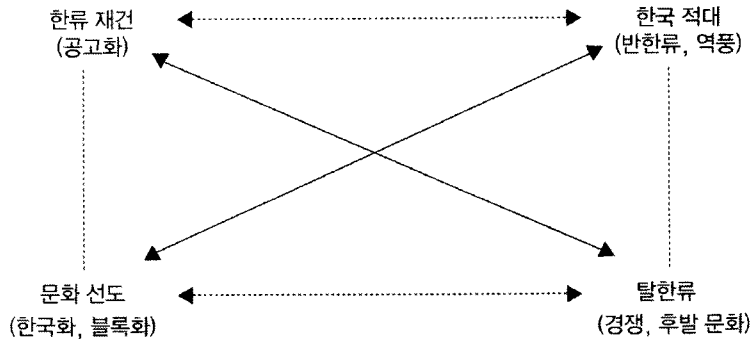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매경
“한중일 대만 지식인들의 성찰담은 반일과 동아시아” (1월 3일 19면)	“아시아 문화융합 통한 신한류” (1. 6. 6면) “대만도 한류마자 정부서 드라마 황금시간대 방영금지 검토” (1. 12. 10면) “몬사마. 지우히메 이을 스타 없다” (3.8) “거품 빠진 한류 걱정되는 한류” (3. 23 3면)	“한국인의 끈질긴 자립정신이 한류 키웠다” (3. 7) “중국 한류 짝퉁 소셜 판처” (3. 18) “한류, 홍콩 느와르처럼 반짝 인기 가능성” (3. 28) “중국 TV의 한류 시샘” (3. 31)	“한국 영화계 중국 전략 13의 관객 잡아라” (1. 21) “한류, 제 3의 문화 충격될까” (3. 16. 27면)	“한류 기로에 섰다” (1. 5)
KBS	MBC	SBS		
“몽골 반환류 역풍 거세다” (1/29) “몽골 한류를 넘어 한국화로” (1. 28) “한류 동아시아 문화로 성장해야” (1. 1)				

우리 사회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극단적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타국의 부정적 반응이나, 한류의 방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보도들도 차츰 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분은 전문가에 의한 논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표 6>은 일반 기사 중에 한류에 대한 자성적 보도를 제시하고 있다.

한류에 대한 자성적 보도는 일방주의적 권력 관계를 해소하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실제 자성적 보도도 한류 관련 저널리즘의 일반적 내러티브 양식을 답습하고 있다. <표 6>에

열거된 보도 내용을 그레마스의 내러티브 의미 분석의 틀로 대입해 봤을 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문화적 감수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자성적 한류 보도의 의미의 사각형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뉴스 보도의 내러티브에서 지시된 것은 한류의 공고화며, 이에 대립되는 것은 한국에 적대감이며, 외국에서 나타나는 반 한류나 역풍을 보도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¹⁾ 위의 내러티브 구조에 의해 상대국의 제도적 변화나 사회적 문제도 ‘반한류’의 적대감으로 보도 내용에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도 내용에 지시되지 않은 모순 향으로 탈한류, 즉 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문화를 경쟁문화로 상징하고 후발 문화에 대한 경계가 내러티브에

11) 『조선일보』(1. 12) 기사는 “중국에 이어 대만도 한국 드라마 방영 제한에 나서는 등 반 한류 빗장 걸기 움직임이 중화권에 확산되고 있다”로 시작된다. (1. 6) 기사는 “2005년 해외에서 한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지만 ‘혐한류’ ‘항한류’ 같은 역풍도 거셌다”로 시작된다. KBS(1. 29) 뉴스는 몽골에서 매춘이나 인종차별 같은 한국인의 추태로 반한 감정이 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류 열풍을 교묘히 이용한 추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몽골 내 반한 감정의 불씨로 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마감하고 있다.

전제되어 있다. <표 6>의 예시대로 중국이 한류를 시샘한다거나, ‘한류 짝퉁 소설’이 판치고, 일본의 寒流를 경계하는 기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¹²⁾ 보도 내용에서 아시아의 다른 문화는 경쟁국으로 경계의 대상이고, ‘짝퉁’, ‘시샘’ 문화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저질 문화라는 전제가 내재해있다. 한류 보도에 자성적 보도에도 한류의 진정한 수용자인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좀 더 알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고, 경쟁문화로만 경계하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되어 있다.

한편, <그림 6>에서 우리가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은 ‘반한류’와 모순항으로 한류제건과 상보 관계의 각을 이룬다. 한류에 대한 자성적 보도의 대부분은 한류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를 포섭하고 교류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내러티브의 구성은 우리가 선도하여 아시아 불록을 형성하고 한국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재하고 있다.¹³⁾ 한류의 편협성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협력을 전제하면서도, 아시아 국가 간의 평등한 문화 교류와 융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 권력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류가 단숨의 성과나 우연의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기반 다짐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담지 하여야

12) 『중앙일보』(3. 31)는 중국 TV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한류를 폄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면서 “문화토론회가 돌연 정치 토론회로 바뀐 것이다.. 지나친 애국주의는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13) KBS(1. 1) “아시아 문화산업 발전을 이끄는데 우리나라가 선두에 서있습니다”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한다. (1. 28) 보도에서 몽골의 반응을 소개하며 “몽골은 이제 단순한 한류를 넘어 한국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겨레』(3. 16)는 한류가 제3의 문화 충격이 될 가능성을 말하면서, 과거 대중에만 국한했던 한류에 대해 “최근 중국의 문예인들은 한국 영상문화에 진지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중국 지식인들은 이제 한류가 반쪽의 문화 충격이 아닌 온전한 제3의 문화 충격으로 번져갈지 주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아일보』(1. 3)도 반일의 맥락에서 한, 중, 일 지식인들이 “모델로 한류가 검토되고, 동아시아 공동 체라는 담론의 확산 검토”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다. 그것이 방송이든, 생활양식이든 현재 확대 재생산된 한류의 담론이 국가 간 구성원들 간의 교류 현상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일방적 점령이 아니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규범이나 도덕성을 위한 이론적 제언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한류와 같은 문화적 현상은 권력 차원이 작용한다고 해도 푸코가 말한 대로 미시적인 차원의 자발적 동원과 합의가 전제된 권력을 뜻하기 때문이다 (Foucault 1977). 자본주의적 이익이 내재하고, 상업주의적 동원이 전제된다고 해도 ‘은사마’에 열광하는 일본 이주머니나 <대장금>을 보면서 일상을 벗어나는 중국의 젊은 팬들의 열광이 산업적 공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 문화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류 현상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 출발점은 한류를 통해 타자를 파악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이 문화적 현상을 통해 파악되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자와 타의 구별 자체가 이항대립적 문화 틀이고, 공격적 타자의 정복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몸짓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문화연구의 답변은 보다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문화 연구 중 현재 가장 논쟁적이고 주목을 받는 이론인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류 보도에 드러난 팽창주의적 사고와 이에 대한 타국의 반발에 의거하여, 한국이 동아시아 내에 제국주의적 권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류보도에 나타난 공격 편향적 내러티브를 제국주의적 관심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류 보도의 내러티브 구조를 보면 제국주의적 공격성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내러티브의 빈 곳이 눈에 띈다. 한류 담론이 팽창적 공략을 모색하지만, 이의 주체가 되는 한국적 정체성은 기실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한류 담론은 자본주의적이거나 문화주의적 성과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대타자의 시각에 의해 보여 지는 자신의 모습에 급급해하는 소아기적

퇴행성을 보이고 있다.

한류 보도에 나타난 한국적 정체성이란 그 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적 정체성의 실체는 물론 산업적 이해관계의 실체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외국에서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축배를 든 양태가 언론에 보도된 한류 기사의 내용이다. 여기서 한국적 정체성은 외부의 시각이 우리에게 어떻게 투사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존재 근거로 남게 되고, 외부 시선으로 상상적 자기 정체성을 재현하기 위해 타자에 대한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로서 현재 한류 보도는 현실적 실리와 타 문화와 인종에 대한 존중의 도덕성도 동시에 놓치는 문제를 낳게 된 것이다.

5. 맺음말

포스트식민주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 중 하나인 인도 출신의 페미니스트 가야트리 스피박은 “투명한 글에 속임수가 있다”는 표현으로 현실에 심층화된 문화적 편견을 해체하기 위한 난해한 이론의 실천적 투쟁을 묘사하였다(Spivak, 1990). 누구나 동의하고 당연시 하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글에는 문화적으로 조성된 왜곡과 권력이 작용할 수 있다. 정연한 6하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묘사된 저널리즘의 투명한 글에도 속임수, 즉 사실과 다른 현실 왜곡이나 더 나아가 억압적 권력이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뉴스의 내러티브 분석은 객관주의의 신화에 갇힌 뉴스의 허구성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내러티브 분석은 흔히 소설이나 영화 같은 허구의 이야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성을 근간으로 한 뉴스의 내러티브 분석은 학문적으로 거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문화 연구의 대전환을 이끈 소위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향으로 사실과 허구, 텍스트와 현실의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회 현상이 하나의 텍스트로 해독의 대상이 되었다. 미디어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서사 분석의 새로운 대상이 되면서 활발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뉴스 분석은 이보다 연구 성과가 적지만 같은 맥락에서 서사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올해 상반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뉴스 중 가장 빈번하게 보도된 한류보도와 하인스 위드의 방한으로 촉발된 인종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보도 모두 우리 사회의 정체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노정하고 있다. 한류와 인종 문제가 국민국가의 단위를 넘는 국가 간 민족 간 문화적 관계를 상징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의식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레비스트로스의 내러티브 구조를 대입해 볼 때, 한류 보도는 자연적 실체를 찾을 수 없고 우리/그들이라는 민족 간 이항대립을 전제한 상상적 공동체의 내러티브적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류의 확대 담론은 다양한 현상을 포섭하면서도 일방적 권력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위협하는 일방적 관계는 팽창주의를 보여주지만, 정체성의 근거를 따져 보면 제국주의나 신제국주의의 담론이라기보다는 포스트식민주의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근간으로 한 또 하나의 뉴스인 인종 문제도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내러티브의 비현실적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인스 위드 신드롬을 일으킨 우리 사회의 ‘혼혈’ 문제는 역사적 자성과 사회적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긴 했지만, 언론 보도에 나타난 내러티브 양식을 보면 우리 사회에 내재한 권력과 욕망을 노정한다. 그레마스의 이론을 모델로 ‘혼혈’ 보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차별을 불식하고 사회적 통합을 선도한다고 하지만, 내러티브 양식은 내재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공격적 팽창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류나 ‘혼혈’ 현상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감수성과 역량의 수준이 낮아, 날로 글로벌화 되는 사회에서 갈등의 소지를 담지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기능주의적 주류 이론에서 제시하는 대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층위에서 접근이 가능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은 현재 국제 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측면과 집단 무의식의 심층적 차원을 파악하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지평을 넓힐 새로운 모델로 도입되었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서 접근할 때, 한류 보도와 인종 보도에 나타난 저널리즘의 내러티브 양식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자와 타의 권력적 관계 설정으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뉴스 보도의 “투명한 글” 이면에는 문화적 몰이해와 문화 권력의 억압과 구속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김기국 (2002). 기호학을 통한 사회현상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50호, 31~54.
- 김훈순 (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담론. 『방송연구』, 46호, 138~165.
- 백선기 (1997). 『보도의 기호학』. 서울: 성대출판사.
- 백선기 (2004). 『한국 언론 보도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기형. (2005). 탈지역적으로 수용되는 대중문화의 부상과 한류 현상을 둘러싼 문화정치. 『언론과 사회』, 13-2, 189~213.
- 이준웅 (2002).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85~153.
- 임영호 (2005).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
- 정재철 (2001). 미국대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방송문화연구』, 13, 257~278.
- 황인성 (1998). 홈리스에서 앵벌이까지: TV 저널리즘 영상담론과 홈리스족. 『문화과학』, 16호, 141~164쪽.
- Bahbah,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arthes, R. (1967). *Elements of Semiology*. London: Janathan Cape.
- _____ (1973). *Mythologies*. London: Paladin.

- Benett, W. (1995).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ew York: Longman.
- Clifford, J. & Marcus (1986). *Writing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pstein, E. (1975). *Between Fact and Fiction: the Problem of Journ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Foucault, M. (1965). *Madness and Civilizatio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 _____ (1977). *Discipline and Punish: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80). *Power/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 Gandhi, L. (1998).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Aallen& Unwin.
- Greimas, A. (1983). *Structural Semiotics*. Nebra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_____ (1987). *On Mean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wkes, T. (1977). *Structuralism and Semiotics*. London: Methuen.
- Jandt, F. (1998).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ondon: Sage.
- Kellner, D. (1995). *Media Culture*. New York: Routledge.
- Levi-Strauss, C. (1968). *Structural Anthropology*. London: AleenLane.
- _____ (1977). *Myth and Meaning*. London: Schocken.
- Marcus, G. & Fisher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ill, J. (1997). *Journalism Ethics: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News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Odin, R. (1982). *Lanalyse Semiologique des Films vers unde Semiopragmatique*. 전수일 (역) Paris: EPTU.
- Proppe, V. (1968). *The Morphology of the Folktal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Quayson, A. (2000). *Postcolonialism: Theory, Practice or Process*. Cambridge: polity press.
- Robinson, J. (2000). Communication in Korea: Playing Things in Ey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 Samovar, L. & Porter. (200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

- WadsWorth.
- _____ (2004).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Belmont: Thomson.
- Sontag, S. (1982). *A Barthes Reader*. New York: Hill and Wang.
- Spitzberg, B. (2000). A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 Spivak, G. (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4). Can the Subaltern Speak. In Williams, P. & Chrisman. (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pp.66~11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yler, S. (1986). Post-Modern Ethnography: from Document of the Occult to Occult Document. *Writing Culture*.
- Walker, D., et al. (2003). *Doing Business Internationally: The Guide to Cross-cultural Success*. New York: McGraw-Hill.
- Williams, A. (1974). Structures of Narrativity in Fritz Lang's *Metropolis*. *Film Quarterly*, V. 27, 17~23.
- Williamson, J. (1978). *Decoding Advertisements*. London: Marion Boyars.
- Wright, W. (1975). *Six Guns and Society*.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최초 투고 2006.8.30, 최종 원고 제출 2006.10.2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Narrative Analysis of News

Sunny Yo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narrative aspect of news in order to disclose problems with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our society. News on racial issues and “Hanryu” would illustrate cultural bias against other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narrative structures of news on these issues using narrative theories including Greimas and Levi-Strauss. It covers news on major newspapers such as Chosun, Jung Ang, Dong A, Hanguerae and Economy Daily as well as major broadcasting news including KBS, SBS and MBC. There were 495 news on ‘Hanryu’ and racial issues with regard to Hines Ward from January 1, 2006 to April 15, 2006. By analysing narrative structures of these news, I found power underneath news messages which undermine the reality. Expansionism and cultural insensibility prevent our society from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as they are. Post-colonial theories provide a guideline for detecting intercultural barriers and national identity crisis in our society.

Key wor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ost-colonial theories, Narrative theories, News Analysis.